“사부대중 평화통일 염원 금강산 신계사 닿길”

민추본, 10월 27일 고성 통일전망대
신계사 복원 15주년 기념법회 봉행
“교류의 활성화 · 평화 통일” 기원

고성=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고성 통일전망대에 남북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는 10월 27일, 고성 통일전망대 통일미륵대불 앞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과 고성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민추본 강원지역본부장)을 비롯해 박광용 고성군 부군수, 관할부대장인 이승오 22사단장, 민추본 회원, 고성군내 불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평화통일 염원과 함께 남북불교 교류의 최대 성과인 금강산 신계사의 복원 의지를 다졌다.

이날 법회는 당초 금강산 신계사 현지에서 남북불교계가 함께하는 합동법회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금강산 가는 길목이자 금강산 조망이 가능한 통일전망대에서 열리게 됐다.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통일전망대서 기념법회를 개최하게 된 연유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월우 스님은 “통일전망대는 먼발치에서나마 고향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1984년 문을 연 분단의 현장이고 2003년 금강산 가는 육로가 열렸을 때 처음 출발했던 역사적인 곳”이라며 “막힌 길은 뚫어야 하고 끊어진 길은 이어야 하듯 막히고 끊어진 군사분계선 상의 길을 부처님 원력으로 다시 잇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0월 27일, 고성 통일전망대 통일미륵대불 앞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월우 스님은 이어 “다음번 기념법회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 불교도가 함께 모여 부처님 앞에 평화와 통일을 서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북불교계는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사실상 교류가 단절된 상태다. 조계종은 그해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합동법회 봉행 후 한두차례 서신을 주고받긴 했으나 함께 행사를 개최할 순 없었다. 이후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재 정책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북한불교계 역시 한국불교계와의 교류 단절을 면치 못한 상황이다.

건봉사 주지이자 민추본 강원지역본부장 현담 스님은 “국제정세와 맞물려 한반도 정세도 경색되고 있는 지금, 신계사 복원과 같은 전통문화 복원과 민족협업을 통한 남북한 교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박광용 고성부군수도 하루속히 금강산이 다시 열려 금강산과 신계사를 다시 찾고, 다양한 사업으로 남북이 하나되길 간절히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통일과 평화 기원 의미가 담긴 기와불사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금강산 신계사 보수에 사용될 기와에 소원문을 작성하는 불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신계사 복원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화해의 악수로 역사의 깊은 골을 메우고, 상생의 나무로 한반도의 푸른숲을 가꾸고, 분단의 철책 위로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온 누리 수승한 공간마다 통일도량을 함께 세우며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갈 희망의 연꽃을 피우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민추본은 법회와 함께 통일전망타워 4층 전망대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그리고 금강산 4대 사찰을 주제로 한 기념사진전을 개막했다. 동참자들은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정과 금강산 4대 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한 사진전을 둘러보며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화합을 염원했다. 사진전은 11월 2일까지 열린다.

욕심 줄이고, 베품 늘이는 다례재 봉행

의왕 청계사 10월 25일
‘5대선사 추모다례재’ 개최

성행 스님의 5대선사 오도송 낭송
3부 전통공연서 문화재활용사업도
신중도 비파연주 재현 “지역상생”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사진 두 번째) 등 스님들을 중심으로 대중들이 부도탑전 탑돌이를 진행하고 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가 ‘선풍 진작’을 위한 5대선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특히 3부 ‘소욕다시 전통문화공연’에서는 청계사 문화재 중 하나인 신중도 속의 비파공연을 재현한 ‘비파천인들의 노래’ 공연이 펼쳐져 다례재에 참석한 대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의왕 청계사는 선불교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경허 선사의 출가사찰로, 청계사는 음력 10월 초하루마다 경허-만공-보월-금오-월산 선사의 선맥을 기리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5대선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해오고 있다.

10월 25일 열린 ‘5대선사 추모다례재’는 1부 다례재, 2부 부도탑 헌다례 및 탑돌이, 3부 소욕다시 전통문화공연의 총 3부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펜데믹 종식을 축하하듯이 300여 대중이 모여 선사들의 가르침을 기렸다.

1부 다례재는 명종 10타를 시작으로 청계사 육법회의 육법공양,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무상행 신도회장의 추모사 낭독, 성림합창단의 추모가와 청법가, 주지 성행 스님의 법문 및 5대선사 오도송 낭송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지 성행 스님은 직접 경허 선사 등 5대 선사 오도송을 낭송하며 대중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성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5대선사 다례재에 ‘소욕다시’라고 명명한 것은 욕심은 적게 내고, 베품은 많이 하라는 의미”라며 “5대선사의 가르침 대로 항상 욕심을 내지 않고, 지역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베풀고자 다례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다섯 선사들이 내린 가르침은 철저한 수행과 자기 주체를 잘 본받아 수행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선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조금이나마 흐트러짐 없는 수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선사 오도송 낭송은 성행 스님이 오도송을 낭송하면, 이를 성림합창단이 음성공양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중들은 5대선사 탑비가 모셔진 부도탑전으로 자리를 옮겨 2부 ‘부도탑 헌다례 및 탑돌이’를 진행했다. 3부 ‘소욕다시 전통문화공연’에서는 비파합주 ‘비파천인들의 노래’ 공연으로 시작됐다. 비파합주에 참여한 이들은 일반인들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청계사 신중도에서 나의 아이템 찾기’ 프로그램 이수자들이다.

이들은 직접 배운 비파를 연주하며 합창단과 함께 가을 산사를 장엄하는 선율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활동 ‘본격화’

10월 27일 창립총회 개최
임원 선출, 회칙 제정 결의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지난 6월에 창립된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임원진 구성과 회칙 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여성불자회는 주요 임원진과 증명, 총재, 지도법사 등의 진용 구성을 완료했다. 증명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총재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지도법사단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종회의원, 주요 사찰 주지 스님들 맡았다. 고문단으로는 여성 원로 재가불자들로 구성된다.

전국여성불자회장은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이, 수석부회장은 이연화 前 은해사 신도회장이 맡았으며, 전국 교구신도회 회장 · 부회장 등이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회장단은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성 불자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국 신도 조직을 만들어줘 감사하다. 정말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면서 “우선 상호간 소통이 잘 되는 게 제일인 것 같다.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테니 회원 여러분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의 얼굴”이라면서 “불교를 책임지는 여성으로서 지역과 교구에 모범이 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남허당 대종사, 부도탑비 제막 43주기 다례재



남허당 대종사 부도탑비 제막식 및 43주기 다례법회가 봉행된 뒤 문도 스님들과 참석 대중들이 새로 건립된 부도탑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0월 7일 선암사 제2부도전서 봉행
제 8대 태고종 총무원장을 역임해
선암사 종권수호, 후학양성 앞장서

한국불교태고종 제8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남허당 남현 대종사〈사진〉 부도탑비 제막식 및 43주기 다례법회가 10월 7일 오전 순천 선암사 제 2부도전에서 봉행됐다.

남허화상문도회(회장 지홍 스님, 법륜사 주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과 문도 스님들이 동참해 남허 대종사의 생전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겼다.

남허화상문도회 회장 지홍 스님은 “남허당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지 반세기 만에 부도탑비를 제막하게 돼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부도탑비 제막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문도와 종도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봉안법어를 통해 “남허당 대종사님은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종단 현대화와 개혁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과 선암사 종권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등 우리 종단을 바로 세우는 기둥 역할을 하셨다”고 남허당 대종사의 생전업적을 추모했다.

한편 1917년에 태어난 남허당 대종사는 193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해월화상(대륜화상 상좌)을 은사로 득도했다. 불교법난 때는 서울 사간동 법륜사 측 대표로 활약했다. 태고종 창종 이후에는 1970년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했으며, 1974년 태고종 총무원장에 선출되었고, 1978년 재임돼 종단을 이끌던 중 1979년 11월 2일 병환으로 법랍 46세 세수 63세로 입적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종 상진문도회, 수법제자 법맥 전수

10월 27일 양주 청련사서 제5회 건당식 봉행



태고종 상진문도회가 10월 27일 양주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제5회 건당식을 봉행했다. 건당식은 불교전통의식으로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건당식은 법주 법담 스님의 종사영반과 소대 타종 등 가사 점안식, 이운의식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고유문 낭독, 전법의식 등으로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건당식에서 법맥을 이어받은 수법제자는 효휘 경산 스님과 효석 일두 스님, 효학 일구 스님, 효월 해인 스님, 효유 도희 스님, 효길 혜련 스님, 효의 일명 스님, 효견 일엽 스님, 효화 묘향 스님, 효결 수월 스님 등 10명. 상진 스님은 수법제자들이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계문을 내려 낭독 후 전달하고, 조패와 의발을 전했다. 이에 법제자들은 호궤합장하고 그 의미를 새겼다.

이날 건당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직접 증명법사로 태고종조 태고 보우 선사 법맥의 흐름을 설명하며 이날 건당식의 의미를 부여했다.

호명 스님은 “신라 고려 법맥이 태고 보우 선사로 이어졌고, 태고종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태고 보우 선사는 사교입선을 강조했다. 이어 종회의장 법담 스님과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의 축사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 포항 태풍피해 1억원 기부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제 11호 대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10월 23일 봉은사에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특히 태풍 힌남노로 사망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사망자 10명의 유가족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성금은 봉은사 회주 해봉 자승 스님이 아픔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먼저 제안하면서 전달식이 준비됐다.

노덕현 기자

성운 스님, 동국대에 2천만원 기금 전달



서울 은평구 삼천사(회주 성운)가 인재양성을 위해 동국대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0월 26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 회의실에서 ‘삼천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삼천사 장학생에는 252명이 신청해 이중 20명을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이 직접 선정했다.

노덕현 기자